

원측교학의 연구 동향에 대한 비평과 제안

백진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진제(眞諦)의 영향과 오성각별설(五姓各別說)의
연구 동향에 대한 비평
- III. 교체론(敎體論)과 유가지관(瑜伽止觀)에 대한
철학적 재조명
 - 1. 교체론 연구의 한계 및 의의
 - 2. 원측교학에서의 유가지관의 의의
- IV. 맺는 말

요약문

이 글은 원측탄생 1400주년을 맞이하여 원측교학을 새롭게 철학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인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20세기 초부터 근 100년간 행해진 원측교학의 연구 동향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는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그 의의를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둘째는 기존의 연구에서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말았지만 원측교학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이다.

진자와 관련해서는, 진제의 학설을 수용하는 원측의 태도나 ‘오성각별(五性各別)’에 대한 그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원측교학의 특징을 밝히려 했던 연구 경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하다니(羽溪, 1916)에서부터 기츠카와(橘川, 1999)에 이르는 근 1세기에 걸친 기존의 연구들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다만 하다니에 의해 확립된 정설, 즉 ‘진제(眞諦) 계통의 학설을 중시하고 일체개성(一切皆成)을 창도했으며 신역과 구역의 절충형’이라고 하는 주장을 재차 확인하거나 조금 수정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학자들에 의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교체론(教體論)’과 ‘유가지관(瑜伽止觀)’이 원측교학에서 갖는 중요한 의의를 부각시켰다. 여기서는 원측이 불교적 진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헌신했던 위대한 경전주석가였다는 점에서 그에게 무엇보다 ‘성스런 교설[聖教]’ 자체의 본질, 즉 ‘교체’에 대한 해명이 교학 연구의 일차적 과제가 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그가 유가행파(瑜伽行派)의 계보를 잇는 학자라는 점에서 맨 먼저 ‘유가’의 이념이 원측교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의의 ‘유가’는 경문 해석의 대원칙이나 불교 교학 전체에 대한 관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협의의 ‘유가’(지관)는 일종의 학문적 방법론이자 궁극적으로는 보리·해탈에 이르는 최상의 방편이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진제와의 관계나 오성각별의 문제는 원측을 범상종의 이파(異派)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원측교학의 사상적 특징과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원측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겼을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원측교학, 오성각별(五性各別), 일체개성(一切皆成), 일승(一乘), 교체(教體), 유가(瑜伽), 지관(止觀)

I. 들어가는 말

한국불교사에서 2013년은 ‘원측(圓測) 탄생 140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평생 이역 땅에서 살면서 오직 교학 연구에 전념했던 이 스님의 헌신적 삶을 생각한다면, 이 시점에서 한국불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자책감과 의무감을 동시에 갖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우연한 계기로 지난 10년간 원측의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와 『인왕경소(仁王經疏)』에 대한 역주 작업을 맡게 되었다. 내가 원측의 저서를 번역하기 시작할 무렵 그의 교학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그가 규기(窺基)와 곧잘 비교되는 법상종(法相宗) 이파(異派)로서 진제(眞諦)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오성각별설(五姓各別說)이나 혹은 ‘문지기를 배수해서 현장의 강의를 몰래 훔쳐들었다’는 도청설(盜聽說) 등과 함께 오래 동안 인구(人口)에 회자되어왔다는 것 정도였다. 그런데 그 역주서들을 준비하던 지난 10년이란 세월은 내게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해 주었다. 첫째는 어떤 교학자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의 저서 중에 하나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숙독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원측의 학문적 위대함을 조명하기에는 다소 부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그의 교학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원측은 결코 ‘원측적인 교학’과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경문의 감춰진 의미들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데 헌신했던 정진주석가였고, 성교(聖敎)에 내포된 철학적 쟁점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는 노련한 철학자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종파를 불문하고 그 나름의 일리가 있다면 그 진리의 필연성에 자유롭게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원측의 사색을 통해 더욱 명료해진 내용들 중에 대부분은, 만약 누군가 그가 배웠던 원리와 방법에 따라서 사유한다면 아마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으리라고 예상되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원측교학의 연구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측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의 철학적 경험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원측이 그런 문제들의 본질에 곧장 접근해서 자신이 알아차린 합당한 이치에 주저 없이 동의했던 데에서 실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교학자로서의 그의 위대한 면모가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러한 확신이 어찌면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부당하게 폄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원측 탄생 1400주년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원측교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사를 조금 비판적으로 검토하게끔 추동하였다. 그것을 살펴보는 데는 기츠카와 도모아키(橋川智昭)의 논문(2001)이 매우 유용할 것 같다. 그의 「일본의 신라 유식 연구동향」에는 20세기 초부터 근 100년간 행해진 원측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¹⁾ 여기서도 나타나듯, 오랫동안 원측교학에 대한 연구는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원측이 진제삼장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측이 과연 오성각별설을 주장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원측교학의 연구에서 한국의 연구자들은 대개 기존의 일본 학자들의 연구서와 논문에 많이 의존한다. 이로 인해 이전의 일본 학자들이 원측과 결부시켜놓은 특정한 주제에 국한해서 그의 교학적 특징을 밝히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²⁾

근 1세기에 걸친 원측교학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깊이 있는 철학적 조명’이라는 측면에서는, 후대의 연구들이 20세기 초의 연구보다 크게 진전된 것은 아닌 듯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원측교학에서 다소 부수적인 주제임에도 학자들의 지속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경우도 있고, 그것의 본질에 접근한 주제임에도 피상적으로 다루지고 끝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조명되었던 문제들의 중요성과

1) 기즈카와 도모아키(橋川智昭), 「일본의 신라유식 연구동향」, 『일본의 한국불교 연구동향』, 한국유학생인도학불교학연구회(서울: 장경각, 2001), pp.95-126 참조.
 2) 한국에서 행해진 원측교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원측교학이 眞諦 계 舊유식과 玄奘 계 新유식의 종합이라고 하는 관점이 지배적인 듯하다. 그 중에서도 원측교학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시도한 논문은 丁永根의 「圓測의 唯識哲學-新·舊 唯識의 批判的 綜合-」(서울 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4)이다. 정영근은 이 글에서 원측의 유식사상이 신·구 유식을 비판적으로 종합한 새로운 체계라고 보는 기본적 시각에 동의하면서도, 특정한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원측교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종합적 안목을 가지고 그의 전체적 사상 체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필자는 특히 원측 유식사상의 기본골격을 三性論 중심의 구유식에서 찾고, 이 학설의 의의를 해명함으로써 五姓各別說을 둘러싼 논란도 자연스럽게 규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 및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쓰게 된 필자의 취지도 이와 같은 연구들을 더욱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나는 『인왕경소』나 『해심밀경소』처럼 현존하는 원측의 저서에 의거해서 원측교학의 특징을 연구해온 사례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다. 첫째는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지만 그 의의를 비판적으로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둘째는 일회적으로 다루고 끝났지만 더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나는 기즈카와의 논문 이상으로 지난 1세기 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잘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의 논문에 의거해서 나의 견해를 말해보겠다.

II. 진제(眞諦)의 영향과 오성각별설(五姓各別說)의 연구 동향에 대한 비평

이 절에서 오래 동안 원측교학의 특징을 밝히는 관건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그 의의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보겠다. 앞서 말한 기즈카와의 논문에서는, 원측교학 연구사를 정리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정설처럼 수용된 통념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원측교학의 특징으로서 진제(眞諦) 계통의 학설을 중시하고 일체개성설(一切皆成說)을 창도했으며 신역과 구역의 절충형이라는 것이 거론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야말로 규기(窺基) 계 교학과의 근본적인 차이로서 한국과 일본에서 정설처럼 회자되어 왔다.”³⁾

여기서도 나타나듯, 20세기 초 하다니 료타이(羽溪了諦: 1916)로부

3) 기즈카와 도모아키, 앞의 논문, p.100 참조.

터 21세기 초 요시무라 마코토(吉村誠: 2000)에 이르기까지 근 1세기에 걸친 원측교학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진제삼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인데, 원측교학이 진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신구(新舊) 절충형이라는 견해, 또는 오히려 진제의 학설에 비판적이었고 현장 역의 문헌에 충실했다는 견해로 갈린다. 둘째는 오성각별설(五姓各別說)에 대한 연구인데, 원측이 범상종의 입장과는 다른 일체개성(一切皆成)을 주장했다는 견해, 또는 그 종파의 입장과 같은 오성각별을 주장했다는 견해로 갈린다.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 연구사의 흐름을 보면, 후대의 연구들은 20세기 초 하다니(1916)에 의해 확립된 그 정설을 재차 확인하거나 그것을 조금 수정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닌 듯하다. 즉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는 있어도, 결국 진제의 학설을 수용하는 원측의 태도나 ‘오성각별’에 대한 원측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원측교학의 사상적 특징을 밝히려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내가 또 확신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만약 원측의 저서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그에게서만 발견되는 어떤 특징을 찾으려 한다면, 아무런 철학적 진보도 없으리라는 것이다. 이 점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내가 이러한 연구들에서 발견했던 몇 가지 의문점을 진술하겠다.

① 우선 내가 무엇보다 의문스러운 것은, 어째서 근 1세기 동안 원측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독 그 두 가지 문제에 천착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게 된 일차적 이유는 후대 학자들이 이전의 누군가가 원측과 결부시켜 놓은 특정한 주제에 국한해서 원측교학을 조명해왔기

때문일 것이다.⁴⁾ 그러나 그 특정 주제들은 원측을 자은(慈恩: 규기) 계열과 대비시켜 그 차이점을 쉽게 이해시키려 했던 사람에게 중시되었을 수는 있어도, 정작 원측 본인의 주요한 관심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즈카와도 기존의 연구사를 총평하면서, “지금까지 원측은 자은 계열과 다르다는 것만 강조되어 그 차이점을 밝히는 데 중점이 두어졌지만, 사상의 근본에서 보면 실제로는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⁵⁾고 하였다. 나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과연 그런 차이만을 규명한다고 해서 원측교학의 사상적 특징이나 그의 학문적 위대함이 드러날 것인지를 한 번의 심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차이란 어쩌면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공유된 근본 사상과 연관해서 그의 사상적 특징과 위대함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다음에 원측과 진제와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진제의 영향을 조사해보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원측이 진제의 학설이나 진제 계 문헌을 인용한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인용하는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확인하려 한다. 그리고 긍정적 태도로 많이 인용했다면, 그것이 바로 원측이 진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증거라고 간주하고, 곧이어 원측교학이 신구(新舊)의 절충·융합이라고

4) 20세기 이후 연구사의 흐름을 보면 원측교학에 관한 기존의 정설은 20세기 초 하다니에 의해 확립되었지만, 이러한 하다니의 견해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학자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원측 교학을 규기계열의 범상교학과 구별시켜 범상종의 이파(異派)로 규정하고 그 차이점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정리된 내용을 하다니가 다시 수용한 것이다. 기즈카와 도모야키, 앞의 논문, p.128 참조.

5) 기즈카와 도모야키, 앞의 논문, p.129 참조.

결론짓는다.

우선 이런 식의 연구는 원측교학을 꼭해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왕경소』나 『해심밀경소』 등에 인용된 사례들의 일부만 검토해서 진제와의 관계를 판단할 경우 필시 부적절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무라 쿠니카즈(木村邦和: 1981, 1982)가 원측의 두 문헌에 인용된 진제 계 학설을 모두 전수 조사해서 내뱉던 결론이다. 그에 따르면, 원측은 진제 계 경론을 다수 인용하기는 해도 상세히 조사해보면 유식교학에 대해서는 현장교학을 중시했다.⁶⁾ 기무라의 결론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이상의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원측이 신역 경론을 접하기 이전에 이미 진제 역 문헌들을 중심으로 법상(法相)을 심도 있게 연구했었음을 기록을 통해 알고 있고, 또 그가 신역 경론을 접한 이후로 이전의 관점을 점차로 수정하면서 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켰으리라고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추정해볼 수 있다.⁷⁾ 기존의 연구 추이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추측 가능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기츠카와 도모야키, 앞의 논문, pp.101-103 참조.

7) 원측이 『解深密經疏』 등에서는 진제의 문헌들을 하나의 가능한 해석으로 참고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가령 말년의 저서인 『仁王經疏』에서는 유독 진제의 『本記』와 직접 대조해가며 그 견해를 낱말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 그는 『仁王經疏』 곳곳에서 진제삼장과 자은삼장(慈恩三藏, 현장)의 해석을 대조해놓고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기존의 주석서에서와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교학자의 학문적 생애에서 보면 신역 경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제의 학설보다는 신역 경론을 중심으로 하는 호법·현장의 학설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③ 마지막으로 오성각별설(五姓各別說)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측 당시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히 복잡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하자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츠카와(橋川) 자신이 가장 진전된 논의를 펼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밝히고자 한다.

기츠카와(1999)는 원측이 일체개성(一切皆成)을 주장했다는 하다니(1916)의 설에 반대해서 원측을 다시 오성각별 쪽에 위치 지웠다. 기츠카와가 하다니의 주장을 재검토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유가론기』에 인용된 원측의 주장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인용문에서 원측이 말하려 했던 요지는, ‘일체개성이 아닌 오성각별이 정설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반경』의 일체개성과 마찬가지로 신역 경론에 나온 오성각별도 정설이다’라는 것이다.⁸⁾ 이 논문에서 기츠카와가 방대하고 상세한 고증을 통해 하다니의 설을 하나하나 반박해감과 동시에 이 주제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쟁점들을 새롭게 부각시킨 점은 매우 돋보인다.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도 이전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원측이 일체개성과 오성각별 중에 어느 쪽을 더 지

8) 기츠카와가 원측을 오성각별론자로 확신하게 된 그 인용문은 『瑜伽論記』 권9(『大正藏』42, pp. 520c20-521a3)에 나온다. 여기에는 『涅槃經』에 나온 ‘일체중생개유불성(一切衆生皆有佛性)’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오성각별’을 설하는 신역 경론이 정설이 아니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원측이 반박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인용문에서 원측은 구역 『善戒經』 및 『大莊嚴論』 등에서도 ‘중성이 없는 자’에 대해 설하기 때문에 신역이 정설이 아니라고 비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여기서 원측이 구역 『열반경』의 교설을 부정했을 리는 없다. 다만 그가 말하려 했던 취지는 ‘구역 경전에 일체개성설도 나오지만 또한 신역 경론의 오성각별설도 정설이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내가 이하에서 진술하는 원측의 관점도 잘 부합한다.

지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츠카와 스스로 인정하듯, “법상교학이라고 해서 불성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성각별에 의해 일승교와 불성사상을 해석한다.”⁹⁾ 이것은 원측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가 이해하는 한, ‘일체개성’이나 ‘오성각별’은 모두 원측의 해석에서 도출될 수 있다.

원측이 오성각별을 자세히 다룬 곳은 『해심밀경소』 「무자성상품(無自性相品)」이다. 이 부분의 해석은 매우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원측의 과목 분류를 따라가며 자세히 관독하지 않으면 그의 본의를 파악하기 힘들다. 여기서 진제의 ‘일체개성’과 대당삼장의 ‘오성각별’은 모두 경문에 나온 ‘일승(一乘)’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거론된 것이다. 말하자면 ‘일승’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체개성(一切皆成)’이라 해야 하는데, 경문에는 다시 ‘삼승의 차별[三乘差別: 오성각별]’을 설할 뿐만 아니라 ‘중성이 결정된 성문·독각[定性聲聞獨覺]’이나 열반의 중성이 없는 유정[無性有情]은 결코 성불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설법도 나오기 때문이다.¹⁰⁾ 원측은 ‘일승’의 의미를 논란의 소지 없이 해석하

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¹¹⁾ 그래서 가장 논쟁이 될 만한 두 사람의 주장을 소개하였다. 그것이 바로 진제의 ‘일체개성설’과 대당삼장의 ‘오성각별설’이다.

그런데 이 두 학설에 대한 원측의 입장을 따지기에 앞서, 그가 두 학설의 쟁점을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일체개성’과 ‘오성각별’ 그 자체가 양립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진제삼장과 대당삼장(현장)이 모두 『해심밀경』을 소의정전으로 삼는 사람들로서, 이 경에서 설한 것처럼 ‘일승(一乘)’을 말한다 해서 ‘삼승의 차별[三乘差別: 오성각별]’을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두 사람은 ‘성불하지 못하는 중생도 있는가’ 라는 문제에서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다. 말하자면 진제의 ‘일체개성설’은 일승을 강조하지만 ‘성불 못하는 중생도 있다’는 주장과는 어긋나고, 현장의 ‘오성각별설’은 성불 못하는 중생도 있음을 강조하지만 ‘일승’의 이념과 어긋난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원측이 두 사람의 학설을 다루는 방식이다. 원측이 그 두 학설을 거론한 것은 본래 ‘일승’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해석도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만약 일승의 의미를 강조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무중성과 정성이승도 성불할 수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 반대로 성불할 수 없는 중

9) 기츠카와 도모야키, 앞의 논문, p.105 참조

10) ‘일승’과 ‘삼승의 차별’을 동시에 설하는 경문은 『解深密經』 「無自性相品」 권2(『大正藏』16, p.695a13-b8)에 나온다. 여기서 세존은 “모든 성문과 독각과 보살은 이 하나의 오묘하고 청정한 도를 함께 하고, 모두 이 하나의 궁극적 청정을 함께 하며, 다시 두 번째 것은 없다. 나는 이에 의거해서 밀의로 오직 ‘일승’만 있다고 설하였다.[一切聲聞獨覺菩薩, 皆共此一妙清淨道, 皆同此一究竟清淨, 更無第二, 我依此故, 密意說言唯有一乘.]”라고 설한다. 이 경문에서 말한 ‘이 하나의 도’란 바로 ‘무성(無性)’ 즉 대승적 의미의 ‘공(空)’을 가리키고, 삼승의 사람들이 모두 이 하나의 도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일승’을 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경문에서는 “모든 유정계에서 갖가지 유정의 중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 둔한 근성이나 중간 근성이나 예리한 근성처럼 유정의 차별이 있다.[非於一切有情界中, 無有種種有情種性. 或鈍根性, 或中根性, 或利根性, 有情差別.]”고 하고, 다시 성문 중에서 ‘일향취적성문중성(一向趣寂聲聞種性)’ 즉 결정성문(決定聲聞)은 미래에도 결코 성불할 수 없고 오직 ‘회향보리

성문중성(回向菩提聲聞種性)’ 즉 ‘부정성문(不定聲聞)’만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한다.
11) ‘일승’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원측은 먼저 ‘이 일승에 대한 성스런 교설은 매우 다양하고, 번역자도 한 사람이 아니며, (그것을 설한) 의취도 심원하다. 그러므로 신역·구역을 (둘러싸고) 경쟁적으로 쟁론을 일으켰다.[然此一乘聖教甚多, 譯者非一, 意趣深遠, 是故新舊競興評論.]’는 것을 환기시킨다. 원측, 『解深密經疏』 권4(『新纂續藏經』 21, pp.268b19-272c24) 참조.

생이 있음을 강조한다면, ‘어떻게 일승의 의미가 성립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두 학설이 각기 교리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중립적인 태도로 자세히 검토하였다.

첫째로 진제의 ‘일체개성’과 관련해서는, ㉠ 먼저 그것이 교리적 근거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일승을 설한 많은 경론의 문구들을 인용하고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기도 한다. ㉡ 이어서 다시 그 학설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경론을 인용해서 ‘어떤 의미에서 무중성과 정성이승도 성불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준다.¹²⁾ 둘째로 대당삼장의 ‘오성각별’과 관련해서는, ㉢ 먼저 그것이 교리적 근거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무중성과 정성이승은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을 설하는 많은 경론의 문구들을 인용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덧붙인다. ㉣ 이어서 다시 그 학설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경론의 문장을 인용해서 ‘일승의 의미가 다의적이고 그것을 설한 취지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¹³⁾ 요컨대, 이 문제를 거론했던 원측의 관심은 ‘일체개성과 오

12) 진제삼장의 일체개성설을 오중성론과 회통시키는 대목은 원측의 『解深密經疏』 권4(『新纂續藏經』21, pp.268c20-269c23)에 나와 있다. 여기에서 원측은 많은 경론을 인용하여 ‘무중성도 성불할 수 있다’거나 ‘중성이 결정된 이승도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도 교리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이 경 등에 준해보면 중성이 없는 유정도 또한 성불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진제의 논지를 보완하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문답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도 한다.

13) 대당삼장의 오성각별설을 일승과 회통시키는 대목은 원측의 『解深密經疏』 권4(『新纂續藏經』21, pp.269c23-272c24)에 나와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측은 많은 경론을 인용하여 ‘중성이 없는 유정과 중성이 결정된 성문·독각은 성불할 수 없다’는 주장이 교리적 근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서 문답을 설정해서 원측 스스로 ‘성불할 수 없는 중생이 있다면 어떻게 일승의 의미가 성립하는가’라고 묻고, 답을 모색해본다. 즉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많은 경론에서 ‘일승’이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다의적으로 쓰이는지, 또 설하는 자의 의취(意趣)에 따라 ‘일승’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각별 중에 어느 쪽이 맞는가’ 또는 ‘진제와 대당삼장의 입장 중에 어느 쪽이 맞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두 학설이 교리적으로 각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두 학설이 모두 경론에 근거를 둔 정설이기 때문이다.¹⁴⁾

그러나 이러한 원측의 작업이 과연 교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측의 학문적 태도가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일견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밖의 많은 학설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태도가 원측의 개인적 성품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배우고 계승했던 교학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절에서 다룰 두 가지 문제는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III. 교체론(教體論)과 유가지관(瑜伽止觀)에 대한 철학적 재조명

이 절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긴 했지만 지속적 관심을 끌지 못했던 두 가지 주제를 언급하려 한다. 그것은 ‘교체론(教體論)’과 ‘유가지관(瑜伽止觀)’이다. 이 두 가지는 원측교학의 근저에 놓인 철학적 기초이자 이념이다. 내가 아는 한, 원측은 중국 교학자들 중에 교

14) 경문해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원측의 학문적 태도는 다음 절에 논하는 ‘유가도(瑜伽道)’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3.-2) 유가지관’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체론에 내포된 철학적 의미와 쟁점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시했던 최초의 사람이었고, 또 불교 교학 연구에서 그 특유의 융화적 태도로 ‘유가(yoga, 瑜伽)’의 이념을 극진하게 관찰시켰던 위대한 유가행자였다. 서두에서 나는 원측교학의 연구에 있어 진전을 이루려면 원측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을 보편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면서 나의 견해를 덧붙이겠다.

1. 교체론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다시 기즈카와의 논문으로 돌아가 보면, 기무라 키요타가(木村清孝: 1990)와 기즈카와(橋川: 1998) 본인이 각기 다른 목적에서 ‘교체’의 문제를 다루었다. 기무라는 화엄종 법장(法藏)에게 미친 원측교학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¹⁵⁾ 기즈카와는 법상종 혜소의 문헌에 인용된 원측의 학설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¹⁶⁾ 각자 ‘교체’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교체를 다루는 방식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기무라가 교체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면, 반면에 기즈카와는 원측의 오문(五門)의 명칭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무라는 원측의 오문과 법장의 십문(十門)에서 다루어진 교체론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법장의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에서 원측의 논술 일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밝힌다.

15) 기즈카와 도모야키, 앞의 논문, p.119 참조.

16) 기즈카와 도모야키, 앞의 논문, p.116 참조.

한편, 기즈카와는 혜소(惠沼)의 『성유식론요의등(成唯識論了義燈)』에 인용된 원측의 오문의 명칭과 태현(太賢)의 『성유식론학기(成唯識論學記)』에 인용된 원측의 오문의 명칭이 달라진 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혜소가 원측의 학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다.

먼저, 기즈카와의 접근 방식은 원측의 교체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여기서 교체론이란 ‘음성 언어로서의 교의 본질[教體]’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교’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음성[聲]·명(名)·구(句)·문(文) 등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다양한 경론들에서는 진과 망[眞妄], 식과 상[識相] 또는 심과 경[心境], 가와 실[假實]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음성 언어로서의 ‘교’의 근원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섭망귀진문(攝妄歸眞門)의 진여나 섭상귀식문(攝相歸識門)의 식(識)이나 이가종실문(以假從實門)의 음성[聲]이 제시되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대당삼장의 오문 등이 제시되었지만, 앞서 말했듯 교체는 일차적으로는 음성·명·구·문이 중심이기 때문에 앞의 세 문도 모두 ‘진여와 음성·명·구·문’, ‘식과 음성·명·구·문’, ‘음성과 음성·명·구·문’의 관계에서 교체를 관별한 것이다. 만약 앞의 두 문에서 ‘망(妄)’과 ‘상(相)’을 강조하거나, 혹은 세 번째 문에서 가법(假法: 명·구·문)과 실법(實法: 聲) 간의 상호 의존[假實相藉]을 강조한다면, 진·망과 식·상과 가·실 중에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든 모두 음성·명·구·문이라는 네 가지 법을 교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당삼장의 오문 중에 앞의 세 문 이외에 뒤의 삼법정체문(三法定體門)과 법수출체문(法數出體門)은 별도의 교체를 다룬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앞서 말한 기본 교체 즉 음성·명·구·문이 온·처·계 삼과(三科) 중에 어디에 소속되는지, 혹은 각 종파에서

말한 교체가 어떤 법수(法數)에 해당되는지를 부연설명한 문이다. 그러므로 교체의 종류만 제시하는 문맥에서는 뒤의 두 문을 반드시 설할 필요는 없다.¹⁷⁾

그런데 원측이 제교(諸敎)의 교체론의 차이를 다섯 문으로 정리하든 네 문 혹은 세 문으로 정리하든 간에, 그것은 대당삼장이 전수해준 큰 해석의 틀에 의거해서 진술한 것이다. 그러므로 ‘삼장의 해석[三藏解云]’을 소개하는 형태로 진술되더라도, 그것이 원측의 교체론이 아닌 현장의 교체론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교체를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어떤 문의 명칭이 조금 달라도 동일한 교체론이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식(識)’을 교체로 정의하는 입장에 대해, 원측은 『해심밀경소』에서는 ‘섭상귀식(攝相歸識)’이라 표현했지만, 『반야심경찬』에서는 ‘이경종심(以境從心)’이라 표현하였다.¹⁸⁾ 이런 맥락에서 기즈카와가 ‘대당삼장의 것과는 다른 원측만의 고유한 오

문의 명칭’을 헤소나 태현의 문헌에서 확인하려 했던 것은 부적절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원측 자신이 다양한 교체론을 몇 개의 문으로 정리할 때, 경우에 따라서 문의 명칭을 달리 하거나 문의 개수를 축약해서 진술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우리가 만약 기즈카와처럼 오문의 명칭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면, 법장의 십문(十門)에서 원측교학의 영향을 조사하려 했던 기무라(木村: 1990)의 시도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법장의 십문 중에 원측의 오문과 명칭이 같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²⁰⁾ 그러나 법장의 『화엄경탐현기』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원측이 심혈을 기울였던 교체론의 핵심 내용들이 그대로 진술되고 있다. 그것은 『해심밀경소』의 오문 중에서 다섯 번째 법수출체문(法數出體門)의 내용이다. 이 문에

17) 대당삼장에 따르면, 섭망귀진문(攝妄歸眞門: 진여)과 섭상귀식문(攝相歸識門: 식)과 이가종실문(以假從實門: 음성) 등 세 문은 모두 교의 근원을 강조한 것이지만, 이 두 문에서 후자를 강조하던 교체는 모두 음성·명·구·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당삼장은 다시 앞의 세 문을 다시 두 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 문의 두 가지란 섭망귀진문에 진망차별문(眞妄差別門: 명구문·음성)을 추가한 것이다. 두 번째 문의 두 가지란 섭상귀식문에 식상차별문(識相差別門: 명구문·음성)을 추가한 것이다. 세 번째 문의 두 가지란 이가종실문에 가실차별문(假實差別門: 명구문·음성)을 추가한 것이다. 뒤에 각기 추가된 세 문은 똑같이 ‘음성[聲]·명(名)·구(句)·문(文)’이라는 4법을 교체로 정의한 것인데, 능진(能詮)으로서의 언어 그 자체, 즉 말소리와 그 말소리 상에 나타난 특정한 음운굴곡인 명·구·문을 가리킨다. 이 중에 진망차별문과 식상차별문에서는 각기 ‘망(妄)’과 ‘상(相)’을 강조할 경우, 또 가실차별문에서는 가법(假法: 명·구·문)과 실법(實法: 聲) 간의 상호 의존(假實相藉)을 강조할 경우, 그 네 가지 법을 교체로 제시할 수 있다. 이상은 원측, 앞의 책 권1(『新纂續藏經』21, p.172a1-a19) 참조.

18) 원측, 앞의 책 권1(『新纂續藏經』21, p.172a3), 『般若波羅蜜多心經贊』 권1(『大正藏』33, p.543a21) 참조.

19) 원측의 『解深密經疏』 권1(『新纂續藏經』21, p.172a1-b4)에서는 ‘대당삼장이 오문으로 교체를 제시했다’는 문구와 함께 섭망귀진문(攝妄歸眞門: 진여)과 섭상귀식문(攝相歸識門: 식)과 이가종실문(以假從實門: 음성), 그리고 삼법정체문(三法定體門)과 법수출체문(法數出體門) 등 다섯 문이 나온다. 그런데 이 중에서 뒤의 두 문은 별도의 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 교체가 온전히 삼과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를 따지거나, 각 종과의 교체를 특히 성(聲)·명구문(名句文)이라는 네 가지 법수로 설명해본 것이다. 그런데 원측의 같은 책 권1(『新纂續藏經』21, p.173b20-c1)과 『仁王經疏』 권1(『大正藏』33, p.360a9-15)에서는 이와는 다른 세 문(혹은 네 문으로 볼 수도 있음)이 나오는데, 모두 ‘삼장의 해석[三藏解云]’이라고 소개한다. 또 『般若波羅蜜多心經贊』 권1(『大正藏』33, p.360a11-22)에는 앞의 세 문에 다시 이경종심(以境從心: 식)과 섭망귀진(攝妄歸眞: 진여)의 두 문을 추가하여 오문을 만드는데, 이 문의 명칭은 『해심밀경소』의 오문의 명칭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헤소의 『成唯識論了義燈』과 태현의 『成唯識論學記』에서도 원측의 오문을 인용하면서 다르게 표현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헤소가 왜곡했다고만 볼 수는 없다. 또는 원측의 『成唯識論疏』에서 전후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

20) 『華嚴經探玄記』에 나온 열 가지 문은 첫째 언전변체문(言詮辯體門), 둘째 통섭소전문(通攝所詮門), 셋째 변해제법문(遍該諸法門)……여덟째 제망중중문(帝網重重門), 아홉째 해인병현문(海印炳現門), 열째 주반원비문(主伴圓備門) 등이다. 법장(法藏), 『華嚴經探玄記』 권1(『大正藏』35, p.117c11-14) 참조.

서는 먼저 교체를 능진(能詮)으로서의 음성·명·구·문 네 가지 범수에 국한시켜서 소승·대승의 교체론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런 차이가 생긴 이유를 분석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다. 원측은 논의를 더 확장시켜 가면서, 각 종파에서 본질(本質)의 교체와 영상(影像)의 교체를 설했는가의 여부[本影有無],²¹⁾ 하나의 언음이 듣는 자의 식(識)에 취집·현현하는 데 거치는 마음의 차별적 단계[聚集顯現歷心差別], 여래가 교화를 위해 설한 언어가 일음인지 상이한 언어인지를 판별하는 문제[辨音一異]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다.²²⁾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왜 원측이 그토록 교체론의 문제를 심혈을 기울여 고찰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심도 있는 대답은 한국 학계에서 먼저 제시되었다. 정영근(丁永根)의 「원측의 유식철학-신·구유식의 비판적 종합」은 ‘교의 본질[教體]’에 대한 논의가 불교 전체를 바라보는 원측의 유연한 학문적 태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원측교학의 주요한 특징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에 따르면, ‘신구 유식의 비판적 종합’이라는 원측교학의 특징도, 기본적으로는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이 불교’라고 보는 불교관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이에 덧붙이자면, 나는 원측이 범상종 이파(異派)의 유식학자이기에 앞서 무엇보다 성교(聖敎)의 의미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데 헌신했던 경론의 주석가였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원측을

21) 여기서 본질의 교체란 ‘여래의 입에서 직접 발화된 음성’을 가리키고, 영상의 교체란 ‘듣는 자에게 들려진 것’ 즉 ‘듣는 자의 식에 현현된 언어적 표상’을 가리킨다.
 22) 원측, 『해심밀경소 제1서품』, 백진순 역주(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pp. 20-35 참조.
 23) 丁永根, 앞의 논문, pp.29-46 참조.

경론의 주석가로서 간주할 때, 비로소 그가 중시했던 교학적 과제 중의 하나인 교체론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고 생각한다. 성교의 의미를 명료하게 해석하려는 주석가라면 맨 먼저 성스런 가르침 그 자체, 즉 ‘교설의 본질[教體]’이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해볼 것이다. ‘교체론’이란 바로 성전의 언어에 대한 철학적 사색을 담은 것이다.²⁴⁾

원측은 ‘무상한 말소리[聲]’에서부터 ‘우주적 일음(一音)’에 이르는 다양한 교체론의 역사를 자세하게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학설들에 내포된 쟁점들을 회통·종합함으로써, 원측교학의 백미라고 할 만한 교체론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원측의 교체론에는 불교적 언어관, 다양한 설법관, 불설(佛說)·불설(不說)의 문제, 들음[聞]·설함[說]의 유식학적 의미 등에 대한 예리한 철학적 통찰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원측교학의 연구자라면 반드시 교체에 대한 원측의 언어철학적 사색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그 깊이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²⁵⁾

24) 白眞順은 교체론이 인도의 언어철학적 전통에 기원을 둔 성전어(聖典語)의 본질에 대한 사유라는 관점에서 원측의 교체론을 다시 조명하였다. 필자는 특히 원측이 유식학자 호법의 견해를 적극 활용해서 우주적 일음(一音)에 이르게 되는 사유의 흐름을 추적하였다. 白眞順, 「원측의 교체론과 일음사상」(『인물로 보는 한국의 불교 사상』, 서울: 예문서원, 2004) pp.39-58 참조.
 25) 범상학자들의 주요한 철학적 관심사 중의 하나는 일상적 언어뿐만 아니라 성전의 언어의 본성과 한계에 대해 사색하는 것이다. 유식학자들은 일상어를 포함해서 모든 언어를 일종의 은유적 표현(upacāra, 假說)으로 간주한다. 유식학에서 이 ‘은유’ 개념은 실재론적 집착을 해체시키는 주요한 이론적 무기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白眞順, 「성유식론의 가설(upacāra, 假說)에 대한 연구: 은유적 표현의 근거에 대한 고찰」, 박사학위 논문(연세대학교대학원, 2004) 참조.

2. 원측교학에서의 유가지관의 의의

이제 마지막으로 원측교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되는 용어, 즉 ‘유가지관(瑜伽止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사를 훑어보면, 요시다 도코(吉田道興)가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 요시다(1977)는 유가지관을 천태지관 등과 함께 선관(禪觀)의 일종으로 규명하는 것을 연구 과제로 삼고, 담천(曇遷)이 원측의 스승인 법상(法上)의 스승이었다는 점에 착안해서 원측의 선관이 담천과 『해심밀경』 「분별유가품(分別瑜伽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 요시다(1978)는 『해심밀경』 「분별유가품」의 한 소절에 대해, 『해심밀경소』의 원측의 해석과 『유가론기(瑜伽論記)」 「십결택분(攝決擇分)」(『해심밀경』이 수록된 부분)에 실린 규기(窺基)·혜경(慧景)·신태(神泰) 등을 비롯해서 도륜(道倫, 『유가론기』 저자인 문륜)의 해석을 비교함으로써 당대의 유식제가(唯識諸家)들을 연구하였다.²⁶⁾

나는 요시다의 연구에 대해 어떤 비판을 덧붙이기보다는, 원측교학에서 이 ‘유가지관’이 예상외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유가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앞서 요시다(1978)가 언급했던 원측과 도륜의 두 문헌에는 ‘유가’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두 최승자(最勝子)의 『유가사지론석(瑜伽師地論釋)』에 의거한 것이다.²⁷⁾ 원측은 그에 의거해

26) 기츠카와, 앞의 논문, p.117 참조.

27) 『瑜伽師地論釋』은 『瑜伽師地論』의 가장 오래된 주석서인데, 인도의 최승자(最勝子) 등의 보살이 짓고 당의 현장이 번역한 것이다. 현재는 현장역 1권만 전해진다. 이 논에서는 ‘유가사지론’이라는 책 이름을 해석하면서 ‘유가(yoga, 瑜伽)’의 의미를 경(境)·행(行)·과(果)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원측의 『解深密經疏』

서 유가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광의(廣義)의 유가이고, 둘째는 협의(狹義)의 유가이다.

① 먼저, 넓은 의미에서 유가란 ‘삼승(三乘)의 모든 경계[境]·수행[行]·결과[果]’를 총칭한다. 말하자면 유가행자들이 알아야 할 삼승의 모든 경계들[境], 그것을 앎으로써 일으킨 모든 수행들[行], 그리고 경계에 대한 지식과 수행이 원인이 되어 획득된 모든 결과[果], 내지는 삼승의 경·행·과를 언어로 표현해놓은 성교(聖敎) 등을 통칭해서 ‘유가’라고 한다. 이와 같이 삼승의 모든 경·행·과를 모두 유가라고 통칭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 선교방편(善巧方便)으로서 ‘상응(相應)’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²⁸⁾ 다시 말하면 삼승의 경·행·과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正敎]과 상응하므로 교리적 근거도 있고, 바른 이치[正理]와도 상응하므로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또 그 경계에 대한 앎과 상응해서 수행을 일으키고 그 수행에 상응하는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점에서 경·행·과 간에도 상응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②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유가란 특히 삼승의 관행(觀行)만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는 삼승의 모든 경·행·과 등을 유가라고 통칭

『分別瑜伽品』과 도륜의 『瑜伽論記』에서도 품명과 서명에 쓰인 ‘유가’의 뜻을 해석하면서 경유가(境瑜伽)·행유가(行瑜伽)·과유가(果瑜伽)를 설한다. 최승자, 『瑜伽師地論釋』 권1(『大正藏』30, pp.883c23-884c23). 원측, 앞의 책, 권6(『新纂續藏經』21, p.298a24-c2). 문륜, 앞의 책, 권1(『大正藏』42, pp.311c12-312c10) 참조.

28) 원측은 ‘유가’의 가장 포괄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범음 ‘유가(Ṣ yoga)’는 여기 말로 ‘상응相應’이라 한다. 그런데 이 ‘유가’란 『유가사지론석』에 의하면 두 가지 해석이 다르다. 한편에서는 말한다. <삼승의 경·행·과 등【등】이라는 말은 능전의 교법까지 동등하게 취한 것이다.>의 모든 법들을 다 유가라고 한다. (그것들) 모두가 다 방편선교로서 상응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梵音瑜伽, 此云相應. 然此瑜伽, 依瑜伽釋. 兩釋不同. 一云, 通說三乘境行果等【等言等取能詮教法】所有諸法, 皆名瑜伽. 一切並有方便善巧相應義故.” 원측, 앞의 책, 권6(『新纂續藏經』21, p.298a24-b3) 참조.

하지만, 유가의 본질은 관행이다. 앞서 요시다(1977)가 ‘원측의 유가 지관’ 혹은 ‘원측의 선관(禪觀)’이라 했던 것은 사실 그 관행의 일부에 해당한다. 삼승의 관행은 모두 ‘지관(śamatha-vipaśyanā, 止觀)’을 바탕으로 삼기 때문에 『해심밀경』 「분별유가품」에서는 지관을 중심으로 유가행(瑜伽行)에 대해 설한 것이다.²⁹⁾

이상에서 보면, 우리는 불교 전체를 ‘유가’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그 의미가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절의 서두에서 ‘원측은 교학 연구에서 유가의 이념을 가장 극진하게 관찰시켰던 사람’이라고 평한 바 있다. 앞질러 말하면, 원측에게는 이 ‘유가’ 개념이 경전해석의 대원칙이기도 하고, 불교 교학 전체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며, 일종의 학문적 방법론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보리·해탈로 이끄는 최상의 방편이기도 하다.

① 우선 광의의 유가 개념에서 우리는 원측이라는 교학자의 학문적 태도를 결정지었던 교학의 근본이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삼승의 교학이 모두 궁극의 해탈에 이르는 하나의 거대

한 유가도(yoga-mārga, 瑜伽道)를 이룬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진체의 ‘일체개성’과 현장의 ‘오성각별’에 대한 원측의 입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유가도를 따를 때, 성교(聖敎)의 의미를 명료하게 해석하려는 경전주석가들은 자신의 해석을 포함해서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해석들이라도 마땅히 함께 진술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교(佛敎)’라는 하나의 거대한 유가의 길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조화되거나 갈등하는 관계에서 궁극적 진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측의 『해심밀경소』나 『인왕경소』를 보면, 그가 이러한 유가의 이념을 그 누구보다 잘 견지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경론의 문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간혹 여러 해석들 중에 더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쪽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대개 어떤 하나의 해석이 ‘교(敎)·리(理)와 상응하는 것’이라면, 즉 교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모두 의미 있는 해석으로 간주하였다. 원측의 해석에서 “각기 일리가 있으므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各據一義故不相違]”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원측은 유식학자 이기는 해도 ‘유식(唯識)’의 교의에 국한하지 않고, 반드시 대소승의 여러 학파의 정의(正義)나 경론들의 주요 학설에 의거해서 그 경문의 의미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 때문에 그의 주석서는 언제나 백과사전적 형태를 띠게 된다. 그가 경문을 해석하면서 주로 택한 방식은, 종파별로 나열하되 그 종을 대표하는 논서에서 주요한 학설을 발취하는 것이다. 그는 특히 소승의 살바다종(薩婆多宗: 설일체유부), 경부(經部: 경량부), 대승의 용맹종(龍猛宗: 중관학파), 미륵종(彌勒宗: 유식학파) 등 네 종파의 해석에 의거해서 하나의 이론과 개

29) 좁은 의미에서 ‘유가’는 삼승의 관행(觀行)만을 가리키고, 이 관행의 본질은 지관(止觀)이며, 이 『해심밀경』에서 설하는 ‘유가’란 바로 그 지관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원측의 『解深密經疏』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승의 관행만을 유가라고 설한다. 자주 정진수행해서 이치에 부합하고 관행에 수순해서 수승한 과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경·과·성교는, (그 관행인) 유가의 경계이기 때문에, 유가의 결과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 연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유가라고 했지만 바로 유가(자체인) 것은 아니다.>” 그 『유가사지론석』에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이 『해심밀경』에서 말하는 ‘유가’는 두 번째 설에 해당한다. 모든 관행들 중에서 지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이 『분별유가품』에서는 지·관 유가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분별유가’라고 이름하였다.[一云。正取三乘觀行說名瑜伽。數數進修合理。順行得勝果故。境界聖教。瑜伽境故。詮瑜伽故。亦名瑜伽。非正瑜伽。解云。彼論雖有兩說。此經瑜伽當第二說。於諸行中。止觀爲體……於此品中。廣明正[=止]觀瑜伽之義。故名分別瑜伽。] 원측, 앞의 책(『新纂續藏經』21, p.298b20-c2) 참조.

념의 교리사적 변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³⁰⁾

② 협의의 유가로서 ‘지관’에 대해 자세히 설한 곳은 『해심밀경』 「분별유가품」이다. 여기서는 지관수행과 언어철학적 교의를 결합시킨 독특한 유가지관을 설한다. 지관이란 일반적으로 선정(禪定)·심일경성(心一境性) 등과 동의어로 쓰이지만, ‘지(止)는 소승·대승의 모든 종류의 선정에 공통적으로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지관의 특징은 ‘관(觀)’에 있다. 유가지관의 핵심은 바로 가장 청정한 경계인 법(法)을 관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이란 ‘임시로 안립해놓은 교법[法假安立] 즉 십이분교(十二分教)의 모든 교법을 뜻한다. 말하자면 유가행자는 자기의 산란된 마음을 돌려서 가장 청정한 경계인 ‘교법’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관법에는 고도의 언어철학적 배경이 깔려 있다. 법을 관한다는 것은, 능전(能詮)의 교법 자체의 본성을 관하고, 또 소전(所詮)의 의미[義]의 본성을 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자체로서의 음성[聲]·명(名)·구(句)·문(文)의 본성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 언어에 의해 현현되는 의미, 이 경의 용어로는 ‘삼매속에서 현현된 영상[三摩地所行影像]’에 대해 사색하는 것이다.³¹⁾ 유가행자는 특히 ‘말의 의미의 자리에 놓인

것’, 즉 ‘삼매의 영상’이 외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식(識)이 현현해 낸 것’임을 관함으로써 일상어뿐만 아니라 성전어와 결부되어 일어나는 모든 실재론적 집착을 제거해간다.³²⁾

여기서 우리는 원측교학의 방법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유가지관을 닦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상의 소제가 되는 불교의 교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 하고, 또 그 명상의 독특한 관법(觀法)에 도입된 언어철학적 통찰들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유가지관은 그 자체가 ‘말과 그 의미의 본성’에 대한 사색으로서, 언어철학적 원리와 방법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다. 원측에게 ‘불교’를 연구한다는 것은, 언어 자체로서의 ‘교의 본질’을 사유하고, 그와 동시에 그 교법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의 세계에 대해 사유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 원측이 왜 『해심밀경소』의 서두에 성교(聖敎) 그 자체의 본성에 대한 언어철학적 담론들, 즉 교체론을 길게 서술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교법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교법으로 지시된 의미의 세계, 즉 오온(五蘊)·십이처(十二處)·십팔계(十八界)에서부터 진여(眞如)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一切]의 본성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원측교학에서 언제나 전제되고 있는 것은 ‘일체의 교법과 그 의미의 세계는 모두 가립된 것’이라는 사실이고, 유가지관은 그것을 깨달아가는 최상의 방법

30) 원측소(圓測疏)의 주석학적 특징과 ‘유가(瑜伽)’ 이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백진순, 「원측(圓測)의 『인왕경소(仁王經疏)』에 나타난 경전 해석의 원리와 방법」, 『불교학보』 제56호(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0), pp.151-153 참조.

31) 교법에 대해 사유할 때, 먼저 삼매 속에서 그 교법의 단어나 문구를 매개로 하여 영상을 현현해내고 그에 관해 명상한다. 이때 삼매 속에서 떠오른 영상을 ‘삼마지소행영상(三摩地所行影像)’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알아야 할 의미[所知義]’이자 교법의 의

미다.

32) ‘삼매속에서 현현된 영상[三摩地所行影像]이 외계에서 유래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식(識)’의 산물인지 하는 문제는, 언어철학적 맥락에서는 ‘말의 의미[語義]’ 즉 ‘말과 대응하는 실체’가 외계에 실재하는지 아니면 ‘식의 산물인지 하는 논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관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본성과 그 의미에 대한 언어철학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백진순, 「유식학파에서 요가의 의미와 목적-『해심밀경』 「분별유가품」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16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07), pp.247-260 참조.

이다. 요컨대, 이 유가지관[行瑜伽]은 그의 철학적 통찰[境瑜伽]을 종교적 해탈[果瑜伽]로 이끌어가는 최상의 방편으로서, 마치 그 안에서 지혜를 잉태시키고 점차 성숙시켜서 마침내 궁극의 보리를 탄생시키는 일종의 정신적 연금술과 같은 것이다.

IV. 맺는 말

이상으로 나는 근 1세기에 걸친 대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원측교학의 새로운 철학적 조명을 위한 나의 견해를 피력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우를 범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내가 이런 비난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작업을 시도한 것은, 의외로 아주 소박한 의문 때문이다. 그것은 ‘원측과 같은 대학자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채 어째서 하필 남의 강의를 몰래 훔쳐들었다는 소문으로만 회자되어 왔을까’ 하는 것이다. 원측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원측의 방대한 백과사전적 주석서들을 다 읽어보려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게다가 그들 중에는 ‘원문에 매몰된다’는 이유로 그런 책을 읽는 것을 아주 경멸해야 할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원측 탄생 1400주년이라는 기간이 마치 한 위대한 교학자의 사상이 봉인되었던 세월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그의 저서들을 역주하고 난 후의 소감 그대로 글을 쓰고자 노력했고, 현존하는 『인왕경소』와 『해심밀경소』와 관련된 연구 성과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 것이다. 이 글에서 나는 원측이 진제 계와 현장 계 사이를 오고가는 절충론자가 아니라, 무엇보다 불

교적 진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헌신했던 위대한 경전주석가이자 노련한 철학자였음을 부각시키려 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는 단지 진리를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필연성에 굴복할 줄 아는, 이른바 ‘이장위종(理長爲宗)’의 정신을 가진 교학자였다. 또 그의 모든 작업은, 삼승의 모든 교학이 그랬던 것처럼, 성스런 말씀의 세계에 바쳐진 일종의 헌정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교체’와 ‘유가지관’이 그의 교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것, 그와는 달리 진제와의 관계나 오성각별의 문제는 그를 범상종의 이파(異派)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에 불과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글에서 거론한 ‘교체’나 ‘유가지관’ 이외에도 원측이 진정으로 중요시했을 보편적 문제들은 매우 많다. 그것은 의외로 쉽게 알려질 수 있다. 가령 『해심밀경』의 각 품에서는 승의제(勝義諦)나 윤회의 주제나 공무자성(空無自性) 등과 같은 불교 철학사의 영원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해심밀경』이라는 요의경(了義經)을 받드는 교학자로서, 경문의 의미를 명료하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주제들에 대해 깊이 사색해보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원측교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배웠던 교학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사유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야말로 원측과 후대 연구자들 간의 시대를 뛰어넘는 정신적 공조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圓測, 『解深密經疏』(『新纂續藏經』21).
- ——, 『般若波羅蜜多心經贊』(『大正藏』33).
- ——, 『仁王經疏』(『大正藏』33).
- 最勝子, 『瑜伽師地論釋』(『大正藏』30).
- 法藏, 『華嚴經探玄記』(『大正藏』35).
- 道倫, 『瑜伽論記』(『大正藏』42).
- 惠沼, 『成唯識論了義燈』(『大正藏』43).
- 太賢, 『成唯識論學記』(『新纂續藏經』50).

2. 단행본 및 논문

- 羽溪了諦, 「唯識宗の異派(承前)」, 『宗教研究』1-3 (*再收録(1971)「唯識宗の異派-朝鮮系の唯識宗-」, 『羽溪了諦博士米壽祝賀記念 佛教論說選集』, 大東出版社.)
- 木村邦和, 「眞諦三藏の學說に對する 西明寺圓測の評價—解深密經疏の場合」, 『印道學佛教學研究』, 日本印度學佛教學會, 1981.
- ——, 「西明寺圓測における眞諦三藏所傳の學說に對する(一)」, 『研究紀要』5, 長岡短期大學 1982.
- ——, 「西明寺圓測における眞諦三藏所傳の學說に對する(二)」, 『研究紀要』6, 長岡短期大學 1982.
- 橘川智昭, 「『成唯識論了義燈』の圓測說引用における問題點-圓測の眞意の觀點から-」, 『印道學佛教學研究』47-1, 1998.

- ——, 「圓測による五姓各別の肯定について-圓測思想に對する皆成的解釋の再檢討-」, 『佛教學』40, 佛教思想學會, 1999.
- 木村清孝, 「圓測と法藏-教體論の關わりについて-」, 『韓國佛教學 SEMINAR』4, 新羅佛敎研究會, 1990.
- 吉村誠, 「唐初期における五姓各別說について-圓測と基の論議を中心に-」, 『日本佛敎學會年報』65, 日本佛敎學會, 2000.
- 吉田道興, 「西明寺圓測における止觀」, 『宗教研究』51-3, 1977.
- ——, 「唐代唯識諸家の唯識論考-解深密經疏と瑜伽論記を中心に-」, 『曹洞宗研究員研究生研究紀要』10, 曹洞宗宗務廳, 1978.
- 원측, 『인왕경소』, 백진순 옮김,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 『해심밀경소 제1서품』, 백진순 옮김,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 橘川智昭, 「일본의 신라유식 연구동향」, 『일본의 한국불교 연구동향』, 한국유학생인도학불교학연구회 엮음, 서울: 장경각, 2001.
- 白眞順, 「원측(圓測)의 『인왕경소(仁王經疏)』에 나타난 경전 해석의 원리와 방법」, 『불교학보』 제56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0.
- ——, 「유식학파에서 요가의 의미와 목적」, 『불교학연구』제16호, 2007.
- ——, 「원측의 교체론과 일음사상」, 『인물로 보는 한국의 불교 사상』, 예문서원, 2004.
- ——, 「『성유식론(成唯識論)』의 가설(upacāra, 假說)에 대한 연구—은유적 표현의 근거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 張圭彦, 「圓測 『解深密經疏』 「無自性相品」 연구」,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12.
- 丁永根, 「圓測의 唯識哲學-新·舊唯識의 批判的 綜合-」,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A Critical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Woncheuk Buddhist thoughts 圓測教學

BAEK, Jin-soon

Assistant Professor
Academy of Buddhist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This treatise is written to mark the 1400th anniversary of Woncheuk 圓測 birth and stimulate a new approach to studies on Woncheuk's Buddhist thoughts 教學. To do this, I divided previous studies on Woncheuk's Buddhist thoughts into two broad areas and reviewed them critically. The first are the subjects which scholars have so far mainly concentrated on, the significance of which must be reconsidered critically. The other are the subjects which I believe are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Woncheuk's Buddhist thoughts, although they have only superficially been studied three or four times.

As to the former, I critically reviewed the trend of academic studies attempting to clarify the character of Woncheuk's Buddhist thoughts by examining Woncheuk's attitude towards the acceptance of Paramārtha's 眞諦 theories, and where he stood on the theory that sentient beings are naturally divided into five

gotra-s 五姓各別說. I conclude that over nearly 100 years of study, from Hadani 羽溪 (1916) to Kitzeawa 橘川 (1999), there has been little advancement beyond the level of either reaffirming or merely modifying the expression of the established theory set forward by Hadani. This theory states that Woncheuk emphasized Paramārtha's theories, pioneered the idea that all sentient beings can become a buddha 一切皆成說, and was a compromiser between the new and the old.

As to the latter, I reviewed studies on the essence of teaching 教體 and yoga-sāmatha-vipaśyanā 瑜伽止觀,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they play in Woncheuk's Buddhist thoughts although they have never been the subject of much attention from scholars. Wōnch'ŭk' is a scriptural commentator who devoted his life to help others understand the Buddhist truth, so it was important for him to explain the essence of the sacred teachings 聖教 as a spoken language. Further, as he is a scholar who upholds the great traditions of yogācāra buddhism, we need to consider carefully the meaning of the idea yoga 瑜伽. Yoga in a broad sense can be the grand principle of the commentaries on scriptures or his viewpoint on all Buddhist theories. Yoga in a narrow sense can also be a kind of academic methodology and ultimately the best means to supreme enlightenment and emancipation.

Through these discussions, I conclude as follows: the aforementioned Woncheuk's stance on Paramārtha's theories

and the five gotra-s have perhaps been attracting the attention of scholars who regarded Woncheuk's Buddhist thoughts as merely another faction of the Fa-shang school 法相宗. To reveal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Woncheuk's Buddhist thoughts and his great scholarly achievement, there needs to be a much greater focus on the subjects which Woncheuk himself regarded as those of great importance.

Keywords

study of Woncheuk's Buddhist thoughts, the theory of five gotra-s, the theory that all sentient beings can become a buddha, one vehicle, the essence of teaching, Yoga, śamatha-vipaśyanā

✎ 투고일자 2014.2.8 | 심사일자 2014.2.28 | 게재확정일자 2014.3.6

연기, 마음, 그리고 '합심'사회의 사회학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 I. 서론
- II. 존재의 의존적 발생과 그 관계의 상즉상입
- III. 의존적 발생의 마음과 그 마음의 어울림(합심)
- IV. 합심사회의 사회학
- V. 결론